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옥천동에 미친 영향

들어가는 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의 크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동 지역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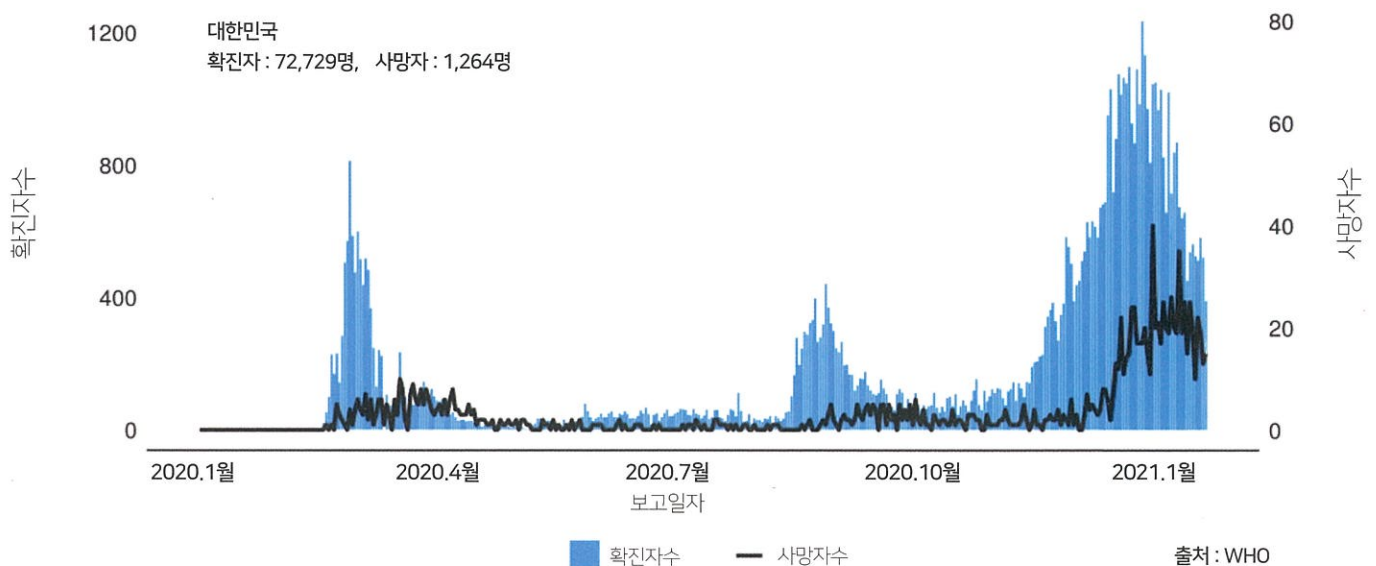
그래서 옥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GIS 교육연구센터와 협력하여 2020년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옥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보고 옥천동 상권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방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GIS 교육연구센터는 휴대폰 통신사 KT가 제공하는 강릉시 건물별 월별 유동인구수(1개월 동안 특정지역을 통과하는 인구의 수, 동일인이 여러번 통과하더라도 중복하여 측정됨) 자료를 이용하여 강릉시 읍면동별 10,000평방미터(100미터X100미터)당 평균 유동인구수를 2019년도 1월~6월, 2020년 1월~6월 월별로 각각 계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전인 2019년과 유행후인 2020년 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개방 사이트(www.localdata.go.kr)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과 2020년 일반음식점의 월별 폐업건수를 계산하고 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전후의 변화를 월별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분석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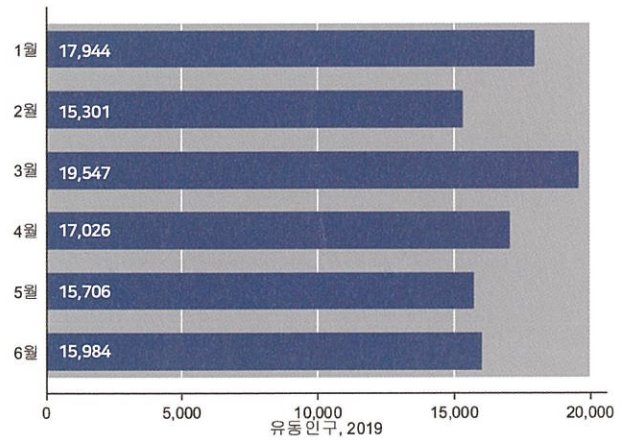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동인구와 일반음식점의 폐업에 대한 분석은 강릉시 모든 읍면동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은 유동인구의 경우 옥천동과 옥천동에 인접한 성남동, 폐업의 경우 옥천동에 한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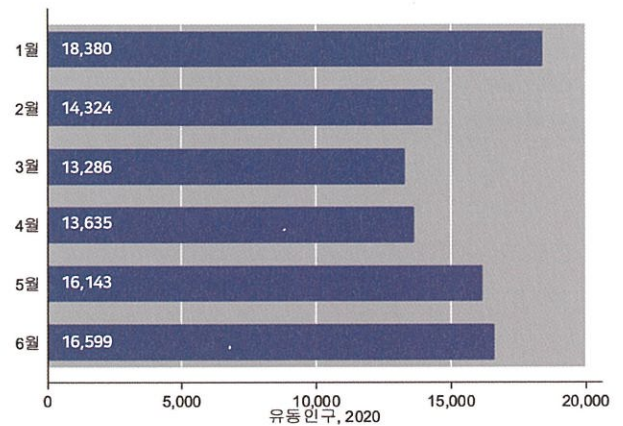
1) 옥천동 유동인구 변화

2019년 옥천동의 10,000평방미터당 월별 유동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최소 15,301명(2월)에서 최대 19,547명(3월) 정도입니다. 3월이 가장 많고 2월이 가장 적습니다.

2020년의 옥천동의 10,000평방미터당 월별 유동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월 18,380명으로 가장 많고 3월 13,286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2019년 유동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3월이 2020년에는 유동인구수가 가장 적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림5는 2020년의 옥천동 10,000평방미터당 월별 유동인구수가 2019년에 비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월, 3월, 4월은 유동인구수가 977명에서 6,261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5월과 6월에는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1차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되던 3월 유동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림3] 2019년 옥천동 월별 유동인구 (10,000평방미터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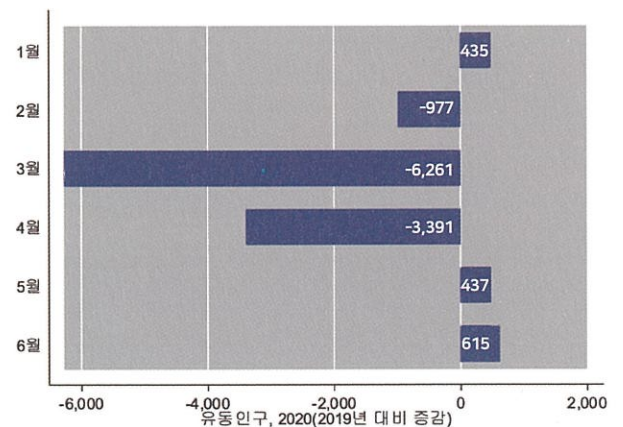
[그림4] 2020년 옥천동 월별 유동인구 (10,000평방미터 당)

2) 성남동 유동인구 변화

우리 옆동네인 성남동의 사정은 어떨까요?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9년 성남동의 10,000평방미터당 월별 유동인구수는 최소 22,439명(5월)에서 최대 25,804명(1월)으로 옥천동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림 7을 살펴보면 2020년 월별 성남동의 10,000평방미터당 월별 유동인구수는 최소 18,039명(3월)에서 최대 25,902명(1월)으로 2019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별로 얼마 만큼 감소하였을까요?

그림 8을 살펴보면 2020년 3월의 경우 7,76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동과는 달리 6월에도 유동인구수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남동은 옥천동과는 달리 문화관광시장인 중앙시장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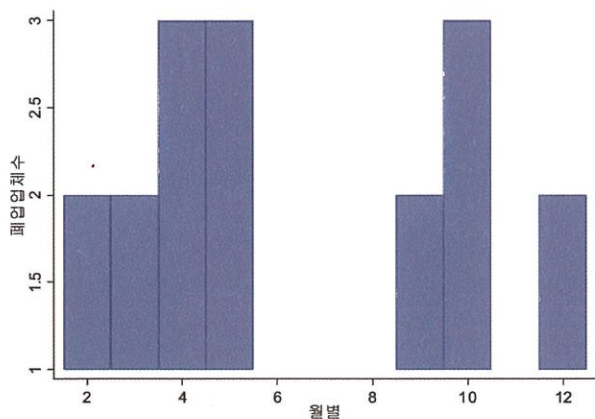
[그림5] 2019년 대비 2020년 옥천동 월별 유동인구 비교

전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성남동의 유동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전국으로부터 오는 방문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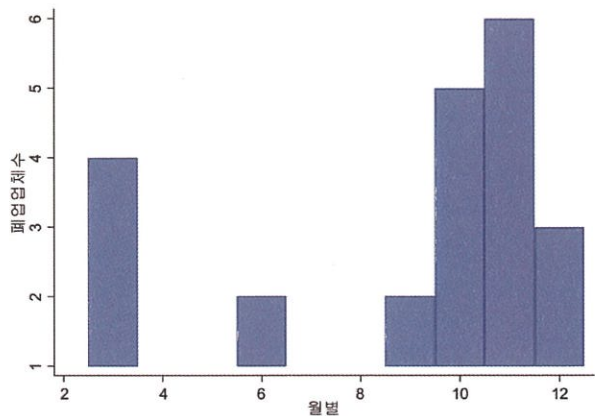
3) 일반 음식점의 폐업(옥천동)

2019년 옥천동 일반음식점의 월별 폐업건수를 그림 9에서 살펴보면 1월, 6월~8월은 폐업사례가 없었고 나머지 월에는 2~3건의 폐업사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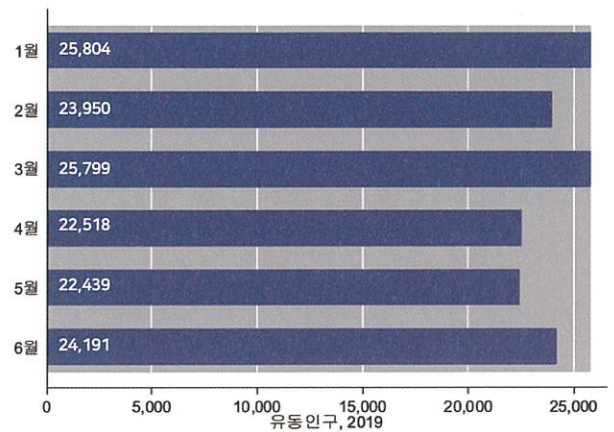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의 경우 1월, 4월, 5월, 7월, 8월의 경우 폐업업체가 없으나 10월, 11월의 경우 5~6건의 폐업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으로 옥천동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은 음식점들이 2020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폐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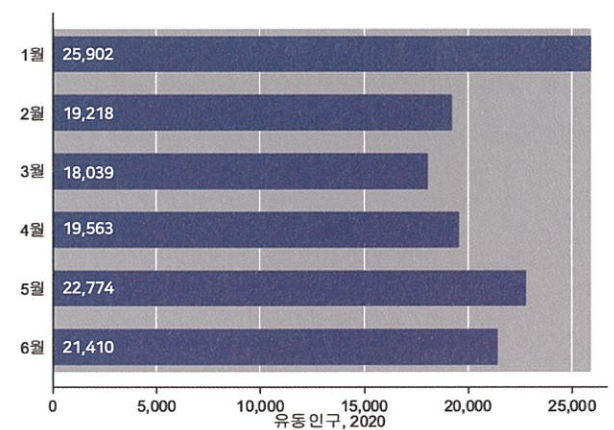
[그림9] 2019년 옥천동 일반음식점 월별 폐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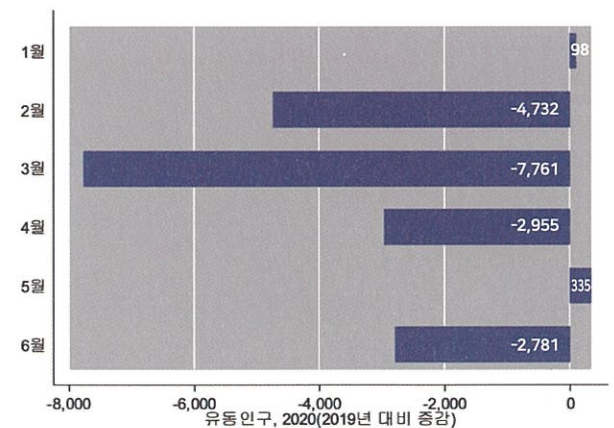
[그림10] 2020년 옥천동 일반음식점 월별 폐업건수



[그림6] 2019년 성남동 월별 유동인구 (10,000평방미터 당)



[그림7] 2020년 성남동 월별 유동인구 (10,000평방미터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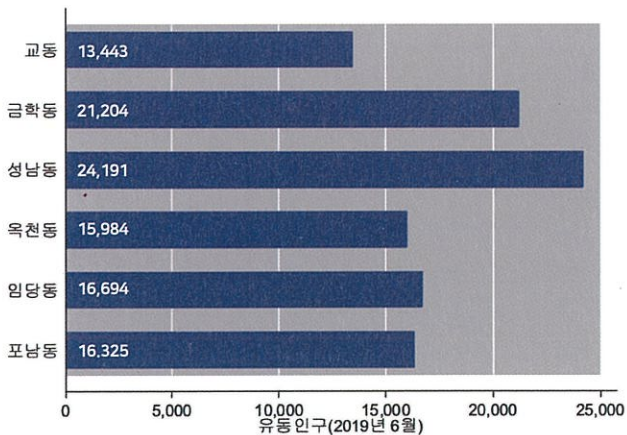
[그림8] 2019년 대비 2020년 성남동 월별 유동인구 비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옥천동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업체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유동인구의 경우 5월과 6월에는 감소추세가 증가로 반전되었으나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 이 추세가 유지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옥천동 주민이 기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유행이 상당부분 억제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 옥천동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천동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힌트는 그림 11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11] 2019년 주요지역별 월별 유동인구(10,000평방미터 당)

그림 11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전인 2019년 6월 옥천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10,000평방미터당 월별 유동인구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림 11을 통해 옥천동에 인접한 성남동과 금학동의 유동인구수가 현저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지역은 강릉의 중심업무지구이자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 및 활성화된 상권 그리고, 교통중심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두 지역은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옥천동은 성남동과 금학동에 인접하여 두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옥천동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남동과 금학동을 방문하는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옥천동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조성한다든지 소규모 박물관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성남동과 금학동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옥천동으로 길을 건너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유동인구 및 음식점의 폐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옥천동의 상황을 분석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다양하고 유익한 분석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곧 찾아올 소소한 일상을 마중 나가봅니다.